

해양수산분야 정상화 프로젝트 제1차 T/F 회의

- 해양수산분야 정상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의견 수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분야 정책 현장에서 국민이 실제로 불편을 겪는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5.7.(목) 부산에서 “제1차 해양수산분야 정상화 프로젝트 TF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내실 있고 시급성이 높은 해양수산분야 정상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그간 부서 검토 및 실·국 토론회 등 내부 의견을 모아 과제를 마련하였다.

황 장관은 최근 보조금 부정수급, 항만배후단지 불법전대 사례 등을 언급하며,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를 개선하는 정상화 과제의 성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고,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황 장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현장의 솔직한 의견을 들으며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과제 외에도 해양수산 분야의 정상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책임자	과 장	도경식 (051-773-5150)
	혁신행정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윤성하 (051-773-5157)